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51
9 772586 107008
ISSN 2586-1077

2025. 봄 Vol.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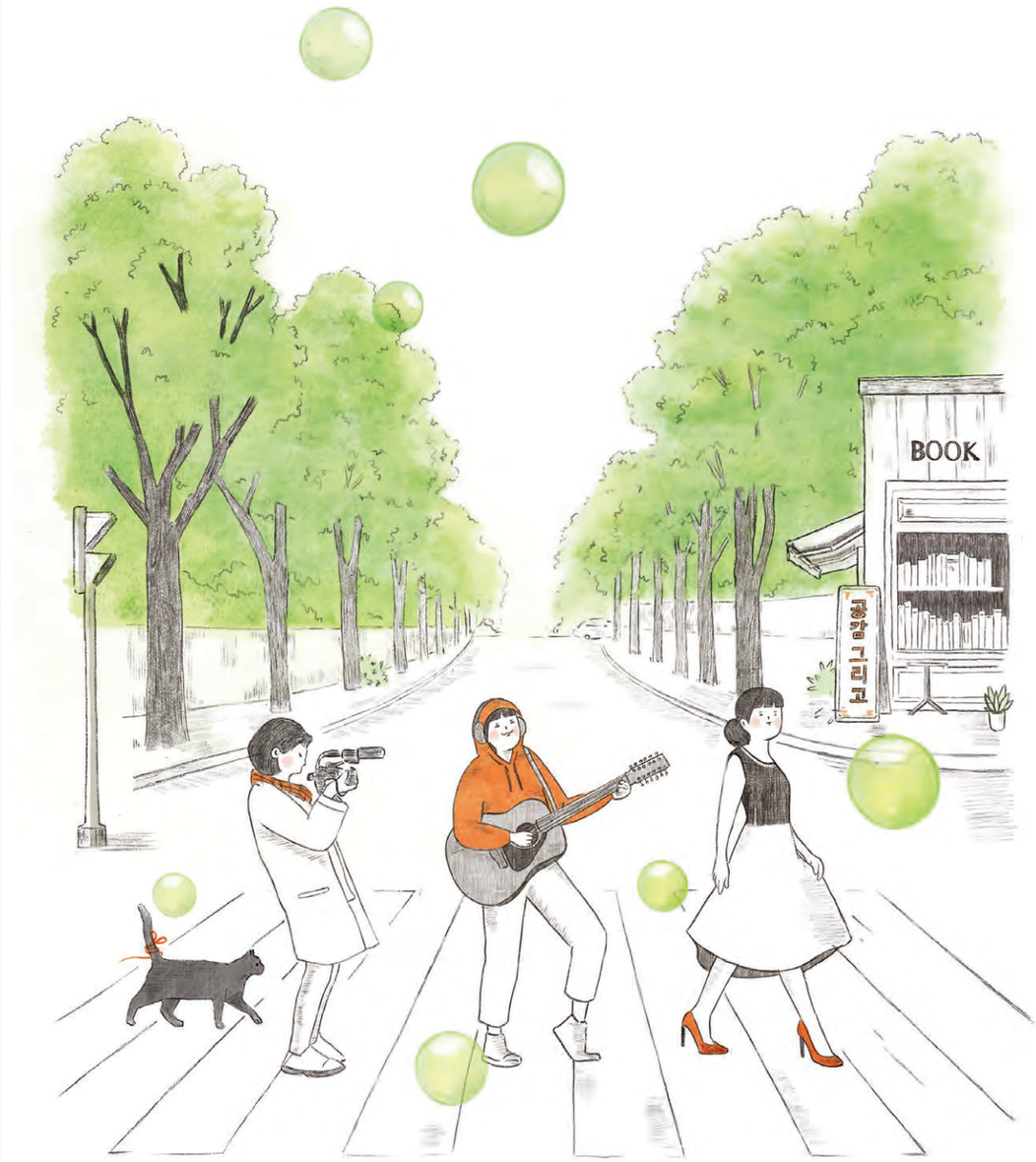
공감 그리고

2025. 봄 Vol. 56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정보지

공감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통권
56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25.5.23.

발행인
오재환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편집위원
신용철, 박미라, 박보은, 옥순주, 정재운

편집기획
소통홍보팀 최윤진, 안혜민, 김다영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CONTENTS

시선

엶
겨울, 봄, 그리하여 싹들 - 신용철 06

앎
자자, 봄맞이 갑시다 - 장희창 10
사람의 자리 - 이동근 14

공감, 잇다

시간, 잇다
마음의 싹을 품고 사는 예술인, 배길남 소설가 - 정재운 22

공간, 잇다
사람은 읽은 책을 닮아갑니다 - 이설희 30

사람, 잇다
부산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기
- 옥순주, 김유하, 김인하, 윤도경, 장예림 36

공감, 백배

행사, 있다
얽힘의 예술 공간 '또따또가' - 창파 46
261년의 시간을 넘어,
조선통신사선이 오사카에 입항하다!
- 조선통신사선 항해단 50

정책, 있다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연결고리:
정책, 예술인, 시민을 잇는
사회자본의 힘 - 원향미 56

가치, 있다
마음을 담다:
예술의 잠재력, 치유의 가능성 - 우동준 60

너머

짧은 소설
포도알 삼키기 - 조재윤 64

공감 그리고, 봄호의 주제는 〈싹〉입니다.

싹. 처음 돋아나는 여린 잎처럼
싹. 잘될 거라는 설렘을 담아
싹. 모두 남김없이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봄은 지나가고 있지만,
당신이 있는 곳이 우리에겐 언제나 봄인 것처럼
나아가면서 힘을 얻는 틔움의 미학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 문진우

겨울,

봄,

그리하여 싹들

글. **신용철**

겨울

그렇게 겨울이 왔다. 긴 겨울이 될지 몰랐다. 지리멸렬했다.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갈가리 찢어진 사람들은 눈을 흡뜨고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대기는 불온했다. 떠난 마음들이 집 잃은 개들 마냥 추레한 몰골로 거리를 떠돌았다.

통과의례를 하듯이 날마다 반찬을 했다.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이 출렁이면 입을 다물고 반찬 궁리를 했다. 어지러운 생각은 또 생각을 불렀다. 출렁이는 마음은 또 마음을 불렀다. 냉동실을 냉장실을 가만히 들여다 들었다. 차분하게 몸을 씻고, 음악을 나직하게 틀었다. 맨발에 헐렁한 잠옷을 입으면 몸이 자유로웠다. 오늘도 술 생각은 나지 않았다. 홀로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 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제 술도 지리멸렬했다. 지리멸렬한 저녁이었다.

날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소리에서 미역국 끓는 소리를 들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있으면 마음도 보골보골 차분하게 끓었다. 바닷속에서 일렁이던 소리가 마른 미역에 담겨 있다가 국물을 만나 서서히 배어나와 조용히 보골거리면 몸에 잠자던 옛 마음 옛 이야기가 새록새록 새어나왔다. 보골보골이랑 새록새록이 만나는 사이에 몸이 끼어 있었다. 미역국으로 몸이 노골노골해지면 미역국이랑 몸은 어느새 서로 온데간데없어졌다.

봄

서사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 서정이 더 출렁일 때가 있다. 걷는 수밖에. 길 위에 출렁이는 서정을 풀어 다시 서사로 돌아올 때까지 걷는 수밖에. 다시 눈발이다. **봄이 올 때까지 걷는 수밖에.**

밤마다 꿈속에서 새 눈길을 만났다. 지쳐서 일찍 잠들면 똑 새벽에 깼다. 늙은 시궁쥐처럼 뽀시락 뽀시락 책도 뜯어 먹고 도시락도 싸고 빨래도 개다가 다시 잠들었다. 실존은 중세의 숲에서 피어났다. 광복 80년을 맞은 해인데, 우리는 아직 중세를 헤매고 있다. 우리의 과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현재에 다시 나타나 부르짖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대. 망령으로 떠돌던 존재가 나타나 제 존재를 과시하는 망령의 광장. 어떤 실존이 다른 실존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 실존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고, 과거와 현재의 실존은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것이었다. 우리 안엔 여러 실존의 목소리가 늘 함께 출렁 일렁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악이며 선이며 그 사이에 사는 도깨비며 귀신이다.

무너진 말들 사이를 떠돌며 새 말들을 궁리했다. 예술을 꿈속에서 만났다. 중세 교실에서 현대 아이들이 예술을 배우는 수업시간이다. 사방이 칠판이고, 배 모양으로 생긴 탁자 여기저기에 아이들이 꽃처럼 피었다. 아르케(Arche)를 들먹이며 테크네(Techne)로 넘어가면서 곰브리치 쌈 싸 먹는 예술사를 시작하려고 했다. 교실 언저리에 걸터앉아 있던 사자머리 철학자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들어 분필로 칠판을 황칠하고 노래 부르며 서까래 위로 올라가 가늠하기 힘든 노래를 부르며 수업을 했다. 아이들이 재밌어했다. 나도 서서히 물들어 갔다. 미학이든 예술사학이든 놀고 자빠지며 타고 넘는 것이었다.

싹들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으려고 한다. 긴 겨울이었다. 겨울 꼬리가 갈 듯 말 듯 주춤거려 봄마저 흐릿했다. 봄물할미 아랫도리에 지난겨울 자국이 자욱하다. 민들레 홀씨 활개를 펴고 날아오를 채비하고 있다. 나도 겨드랑이 돋는 날개를 펴고 따라가련다. 다시 골짜기를 훑으며 언덕 너머를 바라보며 네 틈으로 날아가련다.

락밴드 Eels의 'You Rock My World'를 듣는다. 보살피면 흔들린다. 흔들리는 건 틈이 있어서이다. 틈이 있어 서로 흔들리는 것이다. 서로 틈을 들여다 들어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틈 사이 내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 피우는 동안 우주가 가만히 숨 쉬는 소리를 들어볼까. 슬프고 아름답지 않아?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문득 새로운 싹을 뿌릴 것이다. 싹들이 뿌려진 땅을 뒹굴어 싹들을 기어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싹들이며 모든 싹들이다.

신용철
시골큐레이터. 15년 동안 민주공원 학예실장으로 있었다. 올해 5월 거리로 돌아왔다. 큐레이터는 사라짐으로 살아가는 목숨이다. 아나키 히피 집시 예술가들이랑 사이좋게 지구의 회전축이 기우는 소리를 듣고 싶다.

자자,

봄맞이

갑시다

글. **장희창**

뒷산 골짜기로 아침 산책을 자주 간다. 불어오는 바람 소리, 흘러가는 물소리는 언제 들어도 시원하다. 이게 뭐야. 내 머릿속 잡념도 끊임이 없네. 잡념이 이기나, 물소리가 이기나. 이런, 내가 일방적으로 밀린다. 우리의 삶이란 무승부의 세계일 것임이 분명한데 나는 왜 이리 허둥대는가. 이따금 곤줄박이와 직박구리, 다람쥐와 멧비둘기가 등장한다. 아주 가끔 왜가리도 보인다.

나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천하의 누구누구'라고 부르곤 한다. 가령 아틀리에에서 거리에서 예술에 몸 바치는 화가나 춤꾼들을 어쩌다가 만나면 천하의 예술가를 만나 반갑다며 호들갑 떤다. 상대방은 잠시 어리둥절하겠지만, 내 말은 과찬도 호들갑도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이 광대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 물신(物神)의 안개 자욱한 우중충한 거리에 파릇파릇 싹을 틔우는 분들이 아닌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새로 부임해 온 키팅 선생은 세상과의 교감을 잃어가며, 균일한 인간으로 훈육되어 가는 학생들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던가. "카르페 디엠! 순간을 잡아라!"는 그의 말에 공감한 학생들이 야간모임에서 바이블처럼 읽었던 책은 『월든』이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살아 있고 또 끊임없이 변해간다. 꾸물거릴 틈이 어딨나. 바로 지금 행복해지지 않으면 언제 행복해질래. 자연과 사회 속에 기적처럼 던져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친구들과 그 설렘과 행복을 쟁취하라는 것이 키팅 선생의 가르침이었다.

지구로 온 어린왕자가 친구를 기다리며 느꼈던 설렘과 두근거림은 우정이 움트는 소리였다. 그 설렘은 무지와 탐욕의 벽을 뚫고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월든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았던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선(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죽은 숲에서 새싹이 돋는 것과 같다." 자연과 인간 사회는 이런 식으로 손잡고 있다. 『월든』은 어디를 펼쳐도 싱그러운 야생의 기운이 넘실거린다. "큰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나의 재주!"와 같은 역설적 표현들이 가득하다. '큰 것' 속에 담긴 부정의 의미를 다시 부정하며, 그 전체를 긍정하는 소용돌이치는 어법이다. 자연의 꿈틀거림이 몸속에 그대로 배어든 그런 표현이다. 사상의 대가는 곧 표현의 대가이다.

자연만 살아 있는가. 역사도 살아 있다. 지난 몇 달 동안에도 코앞에서 보았듯이 역사는 엎치락뒤치락, 안도와 울분. 때로는 희망이고 때로는 절망이다. E. H. 카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한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가 다루는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다. 유토피아는 저 먼 곳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곳으로 가는 이정표들은 우리가 한 발 한 발 전진해야만 시야에 들어온다. 역사의 소리 없는 함성은 5월의 광주로부터,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미래로부터 동시에 들려온다. 루쉰의 말대로 희망이란 길과 같은 것이다. 길이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묵묵한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시장 체제 안에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쪼그라들고 순종하고 표준화된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활달한 개성과 독창성을 가꾸어가는 시민들의 발랄함이 우리를 살맛 나게 한다. 인간보다 인간에게 이로운 건 없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대, 인간의 인간됨을 묻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긴요한 화두이다. 기계에, 인공지능에 무슨 그리움이 있고 설렘이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이 어떻게 싹을 틔우겠는가.

나의 유토피아는 자유와 웃음의 정신이다. 『열하일기』에서 연암은 머물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으로 살며, 익숙함과 낯설음을 평등하게 보라고 말한다. 공자 왈 맹자 왈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민중의 삶과 고통 속으로 내려오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엄숙하기보다는 장난스럽다. 시종일관 웃음의 물결이 출렁거린다. 양반들의 위선을 고발할 때는 차가운 풍자의 웃음을, 백성 앞에서는 따뜻한 해학을 날린다. 장난기는 무거움을 털어버리고 중심을 해체한다. 과거 시험장에 억지로 끌려왔다가 답안지에 낙서를 해놓고 빼소니친 장면은 한국사의 명장면이다. 지금의 고시 과목에 연암의 『열하일기』는 꼭 넣어야 한다.

스페인에서 웃음의 대가는 세르반테스다. 알제리 해적들에게 붙들려 5년간 갤리선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달관의 인간 세르반테스. 그의 분신인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광활한 평원을 떠돌며 귀족도 평민도 공주도 술집 여성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평등함을 설파한다. 광기에 찬 인물로 알려진 돈키호테는 알고 보면 도통한 인간이다. 술집 여성을 보고 공주라고 그랬으니 진짜 공주는 얼마나 분통 터졌을까. 하지만 서민들이야 환호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돈키호테에겐 일말의 권위 의식도 없다. 세숫대야를 투구로 쓰고 다니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온다. 거침없는 명랑함.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풍자와 조롱의 몸짓이다.

『돈키호테』를 읽으면 배후에서 씽긋 웃는 역전의 용사 세르반테스를 만난다. 그가 한마디 툭 던진다. 정의와 자비가 부딪칠 때는 그래도 자비를 택하도록 하시오. 『파우스트』를 넘기면 바이마르 시내를 유유히 걸어가는 지혜와 관용의 인간 괴테를 만난다. 그가 말한다. 모든 이론은 잿빛이고 생명의 황금 나무는 영원히 푸른 거네. 집중해 읽노라면 대가들의 굽이치며 흘러가는 정신의 물결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상 수상 소감으로 "하늘에 있는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한 것도 나는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그는 어리지 않느냐고? 천만에. 예술가도 현자도 영원히 젊다. 싱싱한 표현들은 그들의 영원한 젊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무리 코너에 몰려 있어도 웃을 줄 아는 인간! 상식의 감옥을 순식간에 벗어나는 경쾌한 걸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분들의 무덤덤한 시선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나의 꼴은 꾀죄죄하지만, 이들의 영혼을 만나면 덩달아 기분 좋아진다. 그 리듬을 따라가노라면 굴곡진 세상사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쾌감이 든다.

봄이란 무엇인가. 어둠 속에 움츠리고 있다가 빛의 세상을 보러 나오는 싹들의 외출이 아닌가. 장자가 그러셨지. 여물위춘(與物爲春). 만물과 더불어 봄을 이룬다. 자자, 봄맞이 갑시다.

장희창
번역가, 작가, 전 동의대 교수, 괴테학회회장 역임, 현재 독일 고전문학 연구과 번역에 종사하고 있다.

사람의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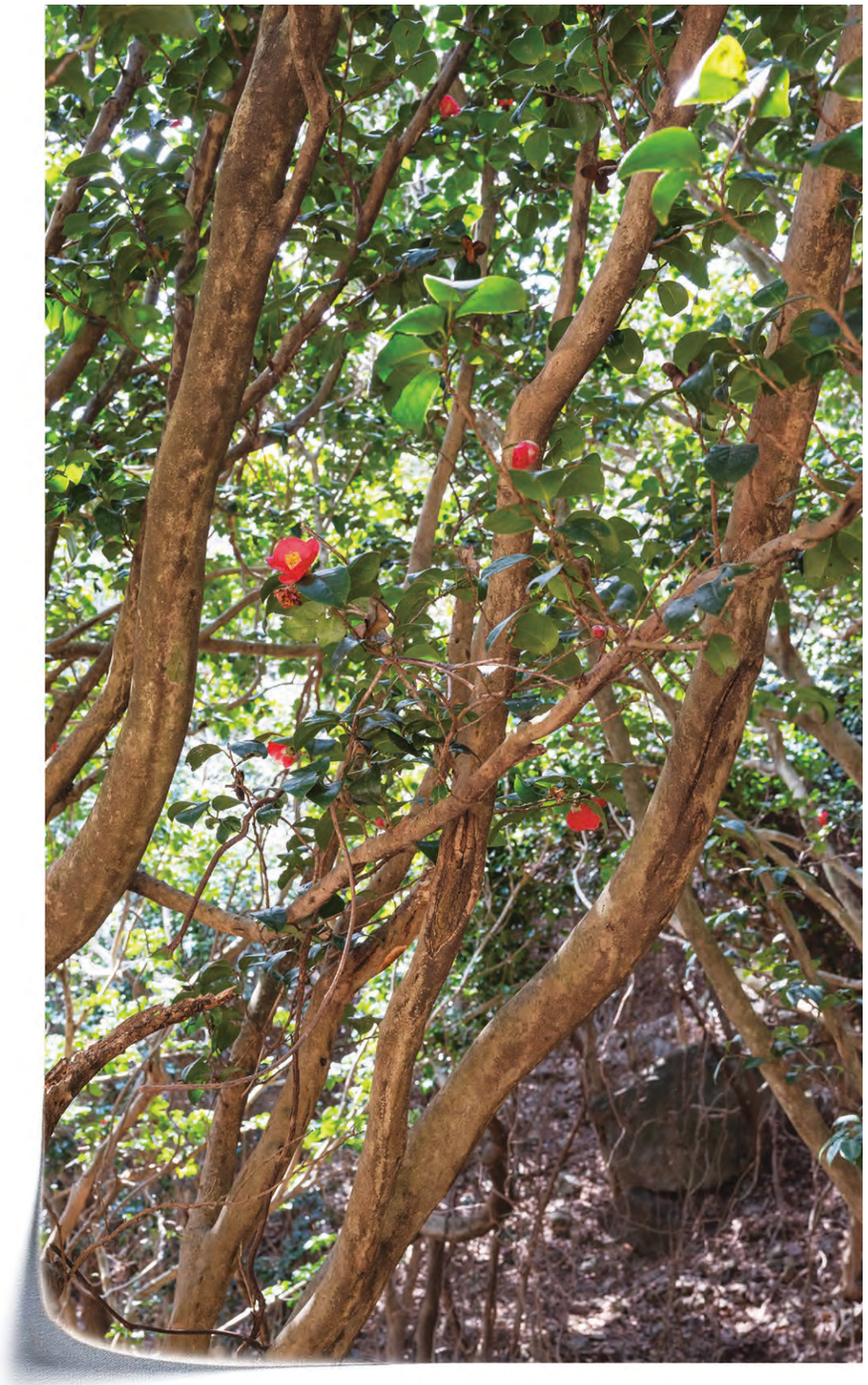
글·사진. **이동근**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나간다”

김광자 할머니는 동네 터줏대감 중의 한 분이다. 가덕도 외양포 마을에서 토박이 아닌 분이 없지만, 바닷가 마을 사람들 특유의 걸걸한 성격에 연세까지 많아 대다수 할머니의 맏언니 노릇을 하는 편이다. 몸도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어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난밤 별일이 없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는 출근하듯이 대항마을 넘어가는 옛길 끝에 있는 경로당에 간다. 점심때가 가까워지면 한 분, 두 분 마을의 할머니들이 이곳으로 모여 함께 점심을 드신다. 설거지를 마친 뒤 소일거리 삼아 화투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을의 대소사부터 시시콜콜한 저녁 밥상 차림까지 대화의 삼매경에 빠진다. 오늘은 문태네가 허리가 아파 명지에 있는 병원을 갔다던데, 수야 집 작은 손자는 지난주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던데, 이렇게 마을의 온갖 일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할머니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문태네, 수야네 할 것 없이 모든 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다. 그 시간이 올해로 80년이 되었다.

작년, 어느 이른 봄날 할머니들이 계신 마을 경로당을 찾았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분위기가 심상찮다. 한숨 소리와 함께 김광자 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한층 톤이 높다. 평소와는 달리 격앙된 상황이란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할머니들의 한마디씩 내뱉듯이 하시는 말씀을 꿰맞추니 전후 상황이 그려졌다. 오전에 시청 공무원들이 왔다는 것이다. 2023년 말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국책사업으로 고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라는 심정으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덜컥 물건 조사를 나온 것이다. 80년을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니 준비할 새도 없이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할머니들의 신공항 사업에 대한 성토는 순서를 바꿔가며 계속되었다. 공항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화를 삭이지를 못하였다. 무거운 분위기에 어쩔 줄을 모르고 추임새처럼 할머님들의 말에 동의만 하다 엉거주춤 나오는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어딜 갈 꺼고’, ‘나는 여기서 죽을 끼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라는 할머니들의 말들이 끊어질 듯 이어지며 경로당 밖 멀리까지 들려왔다.

가덕도는 행정구역상 부산시에 속하는 섬이다. 부산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을 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섬마을이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가덕도가 일순간 신공항



사업으로 혼란에 빠졌다.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연대봉 남쪽 아래, 대항, 세바지, 외양포 세 마을이 사라지고 남쪽 바다 위로 솟아있는 국수봉과 남산이 깎여나갈 예정이다. 그곳에는 '백 년 숲'이라 불리는 울창한 숲이 있다. 해풍을 맞은 아름드리 참나무가 굳건히 서 있고 동백 군락이 하늘을 덮었다. 이 숲은 이름처럼 백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길을 거의 타지 않은 곳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본군이 외양포 마을의 주민을 쫓아내고 요새를 구축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을 불허한 탓이다. 그런 까닭에 가덕도 남단의 국수봉 주위로는 자연과 생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높은 봉우리에는 2차 대전 미군의 공습을 대비하던 관측소가 있고 관측소까지 올라가는 길은 군마가 다녔던 길이다. 후미진 짙은 숲속에는 참호가 있고, 막다른 길에는 탄약고가 있다. 동쪽과 서쪽의 아름다운 해안의 절벽에는 마을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만든 깊고 긴 인공 동굴도 있다. 모든 것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군국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사라지는 세 개의 마을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외양포에 들어서면 시간이 멈춰진 듯하다. 마을을 수호하듯 펼쳐져 있는 포진지는 풀로 덮여 있는 탄약고와 둥글게 파여 있는 포 터가 그 형태와 규모를 짐작게 한다. 포진지 아래의 마을은 광복 이후 지금의 주민들이 터를 잡아, 1904년 일본군들이 진지를 구축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더러 낡고 오래된 지붕을 고치고 실내를 꾸몄지만, 일본식 기와, 양철로 된 벽, 비늘 판벽, 눈썹지붕, 우물 등 전형적인 적산가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외양포 마을에서 일본군이 퇴각한 지 80년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집은 과거 일본군 병사들이 사용하였던 집이다. 지금도 마을 입구 안내 표지판에는 헌병대, 막사, 사령관실, 마구간 등 당시에 사용하였던 건물의 용도가 설명되어 있다. 마을 한쪽에는 우물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있다. 누구는 사령부 행정실이 자신의 집이 되고, 어떤 이는 쇠를 다루던 대장간 집의 주인이 되었다. 포진지 탄약고에 살았던 가족도 있다. 일본군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장소에서, 그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총, 칼을 들고 식민 지배를 위해, 또는 일본 제국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 몸 바쳤던 일본군 병사들의 흔적이 남은 곳에, 외딴섬 평범한 사람들의 지난한 삶이 하나의 공간에서 중첩된다. 일본군이 요새를 축성하고 40여 년의 시간, 그 자리에 지금의 주민이 80여 년의 시간, 도합 120년이란 긴 시간을 견뎌온 낡은 집은 아픈 우리의 역사와 평범한 변두리 삶의 기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억들도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시작되면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다.

김광자 할머니는 여섯 살 때 어머니와 함께 이 마을로 왔다. 그때의 기억을 물었다.

이사 올 때는 고따 집들도 깨끗하이 새집이 다 돼가지고,
전부 다다미 깔려가고,
일본 사람은 다다미에 살았으니까.
전부 다다미 다 깔려있었지, 사람 사는 데는.
복판에 네 집 다섯 집이 여기가 개네들 숙소라,
그래서 다다미가 딱 깔려 있고,
대장들 사는 집은, 요 앞에 있지요.
바로 밑에 요 집, 요 집이고,
저쪽에 또 기와집 하나 있지요.
거게는 그 밑에 대장이 살았는갑데.
그래서 거게는 화장실이 쪼끔씩 있더라고,
안에, 두 집은 안에 화장실이,
나머지는 이런 밥 하는 데고.
부속 재는 데고, 창고고 뭐고, 화약 재는 데고.
'우찌 그리 잘 아노?' (다른 할머니)
대충대충, 여섯 살에 왔으니까 상세히는 모르제.
앞에 집도, 원 집은 거가 밥 간이라.
불난 집, 지금은 없지, 불난 집,
그 집이 불이 안 났으면 이층으로 요래 돼 있었어.
검 나가게끔 이층으로 요래 돼 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저기가 밥 간 새미라.
이 돔네에 여덟 갠가 우물이 있거든요.
저것만 묵는 기라, 저 물만.
이상하지예, 옆에도 있는데 딱 저 물만 좋은기라, 저 우물만.
냄새도 안 나고, 찹고, 겨울 되면 뜨시고,
여름 되면 엄청 차워서 그 물이, 온 돔네 질러다가 묵고 이랬다.
희한하제, 희한해.
칠월 칠석 되면 청도하고 약 넣고,
수도 안 나왔을 때는 그 물 묵고 살았다, 아입니까?
아이고 그때는 진짜 진짜 좋았다,
우리 엄마 말마따나 "좋은 기 천지로 다 있고,"
"좋은 기 다 있고 천지고,"
내도 따라가 보니 좋은 기 천지고.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퍼진다)

지난달 견학차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을을 찾았다. 3월 초까지 추운 날씨였다가 갑자기 날이 풀리면서 봄꽃들이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트렸다. 온 마을이 꽃동산이다. 꽃향기에 취해 마을을 둘러보는데, 우물 옆 작은 텃밭에서 수건을 두른 할머니가 밭일하고 계셨다. '파 한 단만 사주이소'라는 말에 '네?' 하고 쳐다보니 김광자 할머니다. 할머니도 나를 보고 아는 체를 하신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일행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파를 안겼다. 할머니는 미안해하시면서 계속 파를 뽑아 더 넣어주신다. 키가 작고 뿌리가 통통한 것이 맛있는 파라면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우물가 한쪽에 절정으로 핀 동백이 붉은 꽃송이를 툭 툭 떨어트리고 있었다.

이동근
사진을 전공하였으며,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경계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예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음의 싹을 품고 사는 예술인, 배길남 소설가

글. **정재운**

인터뷰 영상
바로가기

부산에서 나고 자란 탓에
자이언츠의 팬이 되었다는 한 사내가 있다.
30년 넘게 우승하지 못한 팀을
응원하는 한 많은 생이지만,
그는 여전히 야구를 사랑한다.
야구만큼이나 사랑하는 글쓰기를 업으로 삼고,
끊임없이 고향을 담아내고 있는 소설가 배길남.
근작 『마마마, 부산』을 통해
도시 부산의 구석구석을 담아냈다는데…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를 좇아가보자.

ⓒ 배길남

정재운 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부산이라는 도시에 관하여 가장 다채로운 시선으로, 누구보다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이가 바로 배길남 작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워낙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길남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길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대해 많이 안다 말하기엔 쑥스러운데요. 저는 장편소설 『두모포왜관 수사록』이라는 작품을 12년 동안 집필했습니다. 부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설이기에 부산의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자연히 주워들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과 제가 태어나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 로컬 에세이집 『하하하, 부산』에 실었고, 근작 『마마마, 부산』에도 담았습니다. 제가 작가로 데뷔한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단편소설로 2011년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면서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산에서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입니다.

정재운 작가님께서 들려주신 소개말 속에서도 활동의 방점에 '부산'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에 관해 제가 설명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배길남 작가는 소설집 『자살관리사』, 『짬뽕 끓이다 갈분 넣으면 사천짜장』, 장편소설 『두모포왜관 수사록』, 로컬에세이집 『하하하 부산』, 『마마마, 부산』을 집필하셨습니다. 펴내신 책마다 책날개에 실은 작가 소개말이 인상적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살았다. 덕분에 자이언츠 팬으로서 한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첫 문구에서 이미 "나는 뼛속 깊이 부산 사람이오!" 하는 선언이 느껴집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당신의 고향을 끊임없이 무대화하고 질료화하는 전업작가로서의 도시 부산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배길남 제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부산은 제 삶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입니다. 30년 넘게 우승 못한 자이언츠의 피가 당연히 흐르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한이 쌓여있지요. 하지만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이라는 소재에만 갇혀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상상은 부산이라는 공간과 현재라는 시간을 훨씬 뛰어넘으니까요. 그래서 우주를 무대로 하는 SF부터 무협, 바다 속 침몰선, 18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추리물,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활극의 장르물까지, 소설의 배경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제 소설의 원류는 부산이죠. 저는 글쓰기 강의를 할 때에도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쓰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 서너 작품 중 하나는 부산을 배경으로 하거나, 등장인물이 부산 사투리를 쓴다거나, 역사적 소재를 쓰려고 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구요.

정재운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작가님에게 단순히 배경요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포커스를 작가님 내부로 좀 옮겨볼게요. 작가님께서는 '국민서관 어린이 세계문학전집 60권을 최애 보물'이라고, 본인소개를 할 때 빠뜨리지 않으신데요. 또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 문장,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라는 대목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죠. 작가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작가나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길남 어머니께서 사주셨던 '국민서관 어린이 세계문학전집 60권'은 사실 일곱 살짜리에겐 힘든 책이었어요. 삽화는 많았지만, 그게 글밥도 많고,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이 직접 번역에 참여해 자신들의 문체로 바꿔서 다듬어낸 책이었거든요. 학년을 거듭할수록 점점 이 책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지막 문장이죠. 『몽테크리스도 백작』을 썼던 뒤마뿐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작가들이 있죠. 『로빈슨 크루소』를 썼던 디포라든지, 『십오 소년 표류기』, 『해저2만리』 등을 썼던 베른도 있고요. 우리에게 『우주전쟁』, 『타임머신』으로 잘 알려진 허버트 조지 웰스 같은 SF작가들도 제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장해서는 김유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웃음 속에 눈물 참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익살, 그리고 익살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부분을 거리두기를 통해 그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한창 멋을 부리고 싶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름으로 이상만 한 자가 있

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상과 김유정은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라는 걸 떠올릴 때 한 극점은 다른 극점과도 만나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재운 근작 『마마마, 부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책을 펼쳐 목차를 보면요, '마, 거가 거가?', '마! 고마 치아라', '마… 함 댕기보입시더', '부산에 가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부산사람이라면 낄낄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 이 책을 접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마마마, 부산』이란 어떤 책이다, 하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길남 부산은 산복도로로 시작하지만, 산복도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가 보이는 망양로만 떠올리게 되거든요? 남구에서 진구를 잇는 진남로라든지, 구포에도 산복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 모든 지역이 산복도로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한 부분만 떠올리게 되죠. 이처럼 『마마마, 부산』은 익숙한 부산을 다양한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 하고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전에 내놓은 『하하하 부산』의 시리즈를 잇는 기획이죠.

제목의 '마'는 부산사람들의 입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말입니다. 먼저, 사직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응원 '마'가 있습니다. 상대 투수의 견제구에 윽박지르듯 함성으로 돌려주는 그런 '마'가 있고요. 故 최동원 선수가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에 등판할 때, "마 한번 해보입시다" 했던 웅숭깊은 그 결심의 '마'도 있습니다. 그 같은 부산사람들의 마음, 그 결을 한 단어에 응축시켜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정재운 책을 펼쳐보면요, 부산의 여러 공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진시장부터 증산공원, 남포동, 부산대학교, 소막마을, 안창마을 등이 있는데요. 책 속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장소 한 곳을 꼽자면 어디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길남 책에 있는 어느 장소 하나 마음에 안 들어오는 곳이 없죠. 그중 부산진시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부산이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중심이었던 동래,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부산이라는 신

© 배길남

1 남포동 고갈비 골목 전경, 한때 수많은 이가 찾은 골목이지만 이제 노포는 한 군데만 남아있다.
2 소막마을 입구

도시가 다시 탄생할 때 주축이었던 부산포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중간으로 나누는 부분이 서면에서 부산진시장 그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진시장을 중심으로 부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우암동 소막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에서 일본으로 소를 반출하기 위해서 소를 갖다 모아놓곤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돌아온 동포들이 살았고, 그 다음엔 전쟁이 나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자리했던 곳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향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애환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재개발로 거의 사라지고 있죠. 그밖에 여러 좋은 곳, 나쁜 곳이 있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과거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삶,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부산을 그리고자 여러 곳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으니 『마마마, 부산』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재운 『마마마, 부산』은 2024년 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올해의 포커스온-문학〉 분야에도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었고, 작가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길남 한 작가의 책이라든지, 작품 세계를 가지고 많은 독자와 만나고, 그걸 어떻게 좀 더 독자들하고 깊이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사업이 '포커스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마마, 부산』이라는 책이 단순히 우리 부산 지역이라는 로컬 하나로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이 책을 펴냈던 호밀밭 출판사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해서 장현정 대표와 함께 전국의 독립 서점을 다니면서 독자들과 만나는 전국 투어 북 콘서트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경남과 전남을 오고 가는 구례에 가서 독자들을 만났고요. 충북 괴산과 대전에 가서 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망원동을 비롯해 세 군데 독립 서점을 다녔습니다.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나름의 특별함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출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로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들의 활동을 특수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많은 고민을 안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정재운 작가님께서는 작품 창작 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나 여러 글쓰기 프로그램, 고정출연하고 계신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독자와의 소통을 넓혀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터뷰를 접하실 분들께 책 밖에서 배길남 작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죠.

배길남 현재 저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월부터 금정도서관에서 12주차의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간 『마마마, 부산』을 기본 텍스트로 삼아 부산의 역사와 부산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만납니다. 고현학적 방법론으로 부산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데였어?' 하는 일종의 재인식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자갈치 아지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을 소개하는 코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로서의 계획은 장편소설 『두모포왜관 수사록』의 개정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에 대해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깊은 층위의 이야기,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운 작가로서 궁극적으로 닿고자 하는 바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배길남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속에 있는 상상을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궁극적으로 담고자 하는 바람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원 없이 쓰고 훗날,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는 그런 선이 있을 텐데 그 선까지 다가가고자 하는 게 언제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뜬구름만 좇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소설가의 본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게 다가오는 것들을 제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제 세계 안에서 재창작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현재는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서 독자와 소통하고 만남을 갈구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운
좋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설집 『경이로운 동그라미』(강, 2024)를 썼다.

사람은
읽은 책을 닮아갑니다

글. **이설희** | 사진. **권순일**

교대역 3번 출구에서 부산교육대학교 방면으로 300미터쯤 떨어진 거리. 부산교육대학교 정문 바로 옆 골목에서 '책방 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2층에 위치한 이 책방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의 계단 벽면이 눈길을 끈다. 마치 서가에 빽빽하게 꽂혀 있는 책을 연상시키는 타일 하나하나에 남겨진 사람들의 흔적. 이곳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책방으로 들어서면 주황빛 조명 덕분인지 공간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다. 중앙에는 널찍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벽면을 따라 낮은 서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공간을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책만큼이나 많은 조명과 그림이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친근하게 다가온다. 순간, 책을 좋아하는 누군가의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 이곳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

보통 독립서점은 책방지기의 취향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책방 감은 민주주의 전문 서점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곳의 책방지기 서희원 대표는 오래전부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해 왔으며 현재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2022년에 책방을 열었다.

'책방 감'의 풀네임은 '책방에서 잡은 감'이다. 그저 '감'이라는 글자의 어감이 좋아서 지은 이름에 자존감, 존재감 같은 단어와 느낌(feel)으로 의미를 확장했다. 종종 사람들이 이름 뜻을 물어볼 때면 농담으로 먹는 감이라 할 때도 있는데, 책방에서 진행하는 강좌 중 쉬운 강좌는 홍시, 밋밋한 강좌는 단감, 어려운 강좌는 땡감이라 표현하기도 한다고.

책방 감에는 다락방 같은 공간이 있다. 주로 대관 형식으로 이용되는 이 공간은 강좌, 세미나 등이 열리거나 사무실 없는 1인 활동가들의 작업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책방 감은 책방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 대표는 누구나 편하게 오가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동네 책방의 묘미라고 한다.

한 번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학생이 있었다. 서 대표는 학생의 취향을 파악하고자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학생의 마음속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학업,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어두웠던 학생의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응원을 받으며 책방을 나선 학생은 분명 성장했을 것이다. 서 대표는 그날 "작은 책방에는 수익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책방 감

연제구 교대로24번길 10, 2층
평일 10:00~20:00,
토 10:00~18:00(일·월 정기 휴무)
051-581-3318

‘사람은 읽은 책을 닮아갑니다’ 책방 입구에서부터 서가 곳곳에서 보이는 이 문구는 책방 감의 캐치프레이즈다. 민주주의 책을 읽은 후 깨달음을 얻어 지금에 이른 서 대표. 서 대표는 **“삶을 경험치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책을 통해 소양을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책이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라고 말했다.

책방 감에서는 그런 바람이 담긴 독서모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지정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모여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 모임 날 다음 달에 읽을 책을 정하고 또다시 책을 읽고 모이는 식이다. 이 외에도 신문 읽기 모임, 저자 초청 북 토크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책방 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책방 감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 대표는 민주주의 관련 책으로 독서모임을 꾸렸다. 독서모임에 참가했던 한 회원은 정치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표도 하지 않았으나 독서모임 이후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 대표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만큼 많은 게 민주주의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을뿐더러 바쁜 일상에 치여 공부할 기회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책방 감에 민주주의 관련 책과 독서모임만 있는 건 아니다. 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책이 비치되어 있고, 인문학 등 여러 주제의 책으로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방문해 보길. 참고로 서 대표가 진행할 다음 독서모임은 민주주의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

책방 감이 부산교육대학교 인근에 자리한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훗날 교사가 될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안다면 학생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광장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기 때문인데, **아주 옛날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처럼 서 대표는 온천천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시간이 흘러 부산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피게 된다면, 그 씨앗은 어쩌면 책방 감일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이설희
경성대학교에서 법학, 문헌정보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현재 디자인 회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부산에서
예술가로 살아가기

진행. **목순주**
대담. **김유하, 김인하, 윤도경, 장예림**
정리. **이설희** | 사진. **권순일**

내 발길이 닿은 그곳에서 시선을 머무르고,
내 삶의 통증을 사유하여 예술로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한 성장. 현재를 생생하게 살아내고 있는 예술쟁이들.
타자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 솔직하게 예술하기를 멈추지 않는
부산 중견 청년 예술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예술로 싹 틔우는 삶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목순주 보통 예술로 성공하려면 서울로 상경해야 한다, 대학로나 홍대에 가야 된다고들 하지만, 네 분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각자 부산에서 예술가로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기(祕技)와 더불어 '우리는 왜 예술을 하는지' 근본적인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모이신 만큼 본인 소개와 근황을 먼저 나눴으면 합니다.

장예림 2023년에 단편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어서 부산독립영화제에 냈습니다. 그 후로 만들었던 작품을 확장시키며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작업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영상도 만들면서 어느 한 쪽으로 일이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을 맞추며 작업하고 있어요. 현재 장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완성하는 게 목표에요.

김유하 올해 또따또가 입주 작가 팀으로 입주했고, '시어터-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야로비무용단에서 활동했고,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 그리고』 편집위원 **옥순주**

5월 22, 23일에 선보일 '중력의 무게'라는 작품에 무용수로 참여하게 되어 준비하고 있어요.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무대 영상 편집을 하거나 오퍼레이터, 스태프로도 일하고 있어서 과연 한 가지 장르로 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윤도경 작년에 낸 정규 3집 앨범 '쟁글쟁글'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나갔고 현수막도 걸렸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앨범이 잘돼서 행복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연초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겪으며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이니까 이야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쌓이고 있어요.

김인하 연출가, 연극배우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배우로 참여했던 일본 공연은 연습 과정이 다소 힘들었습니다. 힘든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답답한 경우는 오랜만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공연 때문에 일본과 대만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당시에 구상했던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주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예술하기를 놓지 않는 이유, 도대체 나에게 예술이 무엇이기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 예술을 놓지 않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 장르가 나에게 온 거잖아요. 도경 님은 자신의 삶을 노래로 기록하시나요?**

윤도경 네. 기본적으로 제가 겪은 시간을 기록합니다. 삶을 기록하고 애정하는 만큼 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노래를 만드는 과정은 너무 지난하고 몸살을 앓는 것처럼 힘들지만, 삶에 대한 결핍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노래라는 조그마한 재주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 정말 기쁘고 그런 순간이 원동력이 돼요.

김인하 예전에는 그냥 재밌어서였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 굴레를 만든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연극인이 되겠다고 말해버려서 그걸 지키기 위해 제 삶을 갈아 넣고 있는 거랄까요. 제가 얘기한 걸 지키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될 때도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연극이 재밌거든요. 지금은 연극 마을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또다시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어요.

장예림 저는 여수가 고향이고 대학 때문에 부산으로 오게 됐어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3학년 때쯤 영상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놓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보라며 저를 잡아주셨고 그때 배우고 느낀 게 많아요.
이후에 운이 좋게도 졸업을 앞두고 '탁주조합'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영화를 만들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게 즐거워졌고,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간인 여수와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면서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유하 무용을 전공했고 20대에 작업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20대 중후반쯤 작업을 중단하게 됐고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3년 정도 다양한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좋아하는 작가를 후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속 창작 욕구가 사라진 건 아니라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났다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 마음먹었을 때 하야로비무용단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 동료의식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

다큐멘터리 감독 **장예림**

다 예술을 한다는 게 가장 인간다운 일이라 생각해요.

옥순주 **맞아요. 예술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예술 안에서 성장하기도 하니까요. 이어서 부산에서 예술을 하며 생존할 수 있었던 비기,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윤도경 부산이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 해도 비영리 부분에 일자리는 항상 있거든요.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함께하고 있어요. 30대 중반까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가수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그만두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하루 일하면 하루는 쉬는 식이라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베짱이처럼 노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앨범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원을 받거나 하는 좋은 기회를 만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 역시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에 얻은 기회였어요.

가수 **윤도경**

김인하 비장의 무기. 참을성인 것 같아요. 힘든 순간에 이를 악물지 않아도 잘 이겨내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수용? 누군가 제 작품에 대해 욕을 하면 고맙고 칭찬하면 기분이 나빠요. 진짜로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칭찬에 갇혀 썩어 들어갈까 무섭더라고요. 일부러 비판을 들으러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 게 쌓이고 다듬어져서 어느 순간 작품에 묻어나더라고요. 아직 빛을 발한 작품은 몇 없지만 제겐 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서울에 있다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진리를 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든 가능성과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서울만 생각하고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니 얻을 수 없는 거죠.

장예림 아직 비장의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일을 한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이걸 시작하게 만든 처음 그 느낌만 가지고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왜 계속하고 있지, 나중에는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그만둘 수도 있고요. 저는 작업을 하며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워요. 그래서 그냥 이걸 왜 시작했는지 '처음'만 가지고 계속하자는 마음이에요.

연극인 **김인하**

김유하 그냥 버티기. 이유 없음. 그냥 하고 있음. 예술이라는 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는 무슨 상을 받았더라. 누구는, 누구는. 보다 높게 보다 멀리 누구보다도 훨씬 잘해야 살아남았어요. 저희 세대는 춤이 그랬거든요. 잣대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일찌감치 제가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이 일이 저를 인간다울 수 있게 만들어요. 좋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의 제가 가장 인간 같아요.

옥순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 또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와 향후 진행될 작업 혹은 공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유하 '시어터-아'에서 제작한 '중력의 무게'라는 공연을 5월에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진행해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요. 8월에는 여러 단체가 협업하여 공연을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9월에는 무용단 공연이 있고요.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방 청소를 하면 방이라도 깨끗하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하면 돼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시어터-아' 단원 **김유하**

장예림 저는 일단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렵고 큰 도전일 수 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해봤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영화제에 출품했던 건 '시월'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여수 '여순사건'과 부산 '부마민주항쟁'을 다룬 작품인데 연도는 다르지만 모두 10월에 있었던 일이라 제목을 직관적으로 지었어요. 이 작품의 연장선으로 장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국가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이 늘 그 자리에 있듯 시간이 흘러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인하 8월에 '스파클링 개구리'라는 제목의 가족 뮤지컬을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스파클링 개구리는 세계관을 넓혀 연작으로 기획하고 있고, '마지막 신문'을 소재로 연극 작품을 하나 구상하고 있어요. 솔직히 연극인들은 벌이도 참 시원찮고 힘들어요. 다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 됐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뻔뻔하게 해나가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윤도경 4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7월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과 경기도 의정부 빼빨마을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제 노래에 바다, 원도심 이야기가 스며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초대해 주셨어요. 특히, 빼빨마을에서의 공연은 소외된 마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거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영도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영도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동네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재미있는 걸 하자고 생각해요.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재미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옥순주 어쩌면 세속의 잣대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 무용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서 예술을 빼앗아버리면 진짜 무용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예술을 한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하, 김인하, 윤도경, 장예림 감사합니다.

옥순주
연극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장한 삶의 단상을 모아 『나의 페르소나 별이』라는 책을 냈다. 현재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로 연극을 활용한 치유적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기서사극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오사카까지

평화와 교류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함께 피어나고,
함께 나아갑니다.
새로운 여정의 싹을 틔웁니다.

© 문진우

얽힘의 예술 공간 '또따또가'

글. **창파**

쉬익쉬익쉬익쉬익, 쇽쇽쇽쇽쇽쇽쇽쇽, 착착착착, 치이익 치이익 탁-쿵.
쉬익쉬익쉬익쉬익, 쇽쇽쇽쇽쇽쇽쇽쇽, 착착착착, 치이익 치이익 탁-쿵.

촘촘한 점망의 잉크가 종이 위에 흐르고, 레일을 따라 인쇄물은 빠르게 이동한다. 눈 깜짝할 사이 층층이 쌓여가는 종이 귀퉁이에는 날 선 쇠가 지나가며 고르지 않던 층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접히고, 엮이고, 오리고, 꿰매고, 붙이고, 자르고, 누르고, 박을 입히는 과정들. 골목에는 오늘도 인쇄기의 소리가 얽히고 겹쳐 일상 위에 차오른다.

부산 중구 동광동과 중앙동. 이곳에는 두 가지 정서가 공존한다. 하나는 골목마다 늘어선 인쇄소들이 만들어내는 인쇄 산업 고유의 리듬과 소리의 지형이다. 다른 하나는 2010년부터 일상 속에 예술의 실천을 일렁이게 만든 '또따또가'라는 예술 생태계의 물결이다.

4.4.(금) 개소식

행사팀 ⓒ

'또따또가'는 발음이 다소 낯설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누구나 오래 기억하게 된다. '또'는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뜻하는 프랑스어 '똘레랑스(Tolerance)'에서 따왔고, '따'는 예술가와 시민이 '따로' 살아가면서도 '또' 함께 문화 활동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마지막 '가(街)'는 예술이 활동하는 지역과 거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또따또가는 다양한 개인을 존중하고 예술로 함께 연결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인쇄 골목 틈새로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어떻게 둥지를 틀게 되었을까?

1990년대 동광동과 중앙동은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시청, 방송국, 은행, 관공서 등 주요 기관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유휴 공간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 이곳에, 빈 사무실과 상가를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바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상상은 원도심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생성과 소멸의 톱니바퀴처럼, 원도심의 변화가 또따또가라는 예술의 씨앗을 불러들였고, 골목마다 새로운 생기를 틔우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또따또가는 인쇄소 골목의 빈 상가 건물들을 임대해 작업실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워크숍룸, 전시실, 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을 조성했다. 이 공유 공간은 입주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을 지역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고, 지역 시민, 상인,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일상 속 예술 활동이 되어주었다.

15년 동안 도심형 레지던시로 운영되며 약 1,5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또따또가를 거쳐갔다. 이들은 문화예술의 매개자로서 인쇄 골목 곳곳에 예술의 씨앗을 퍼뜨리고, 서로 얽혀 공진화하는 예술 생태계를 일구었다. 그들의 행보는 부산 지역 예술 생태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양질의 예술 토양을 만들어간 힘이 되어주었다. 그러므로 지역과 상생하는 또따또가의 예술 활동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이어질 수 있었다.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따또가는 단순히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를 넘어, 예술가들이 지역과 소통하며 일상 가까이 예술을 퍼뜨리는 공공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역과 공간, 사람들과 촘촘히 얽히며, 삶 속에 예술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온 것이다.

2025년, 또따또가는 6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공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얽힘(Entanglement)'이란 낱낱의 존재들이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변화가 다른 존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따또가는 인쇄 골목의 역사적 흐름과 도심 속에 남겨진

흔적들을 예술의 창의적 표현으로 되살리고, 복병산과 용두산이라는 생태 공간이 뒤에 자리하고, 북항이라는 항구를 앞에 둔 특별한 장소성 속에서 미래를 꿈꾼다. 이곳에는 또따또가를 운영하는 센터,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는 예술가들, 원도심 문화를 지켜온 시민들이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 각자 다른 꿈을 품고 살아가지만, 또따또가라는 토대 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방향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얽히며 공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창의성과 관용의 힘으로 15년 동안 일궈 온 또따또가의 예술 생태계는 수많은 예술인과 운영지원센터의 의지 덕분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선 또따또가 6기는 지역과 함께 다시 직조하고, 더욱 깊게 얽혀나갈 것이다.

이번 또따또가 6기에는 18명의 개인 예술가와 7개의 예술단체 총 25팀이 입주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만큼, 입주 예술가들의 면면은 다채롭다. 시각예술 부문에서는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다원예술 등이, 비시각예술 부문에서는 음악, 영화, 무용, 연극, 리서치 및 기획, 소설, 영화평론까지 다양한 장르가 포진해 있다.

입주 작가 중에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전시(2023)〉에 참여하고 하정웅청년작가상을 수상한 현대미술 작가 김덕희, 2025년 하와이트리엔날레에도 참여 중이며 '사회적 발효'라는 개념을 확장해 퍼포먼스와 글쓰기, 구술사를 아우르는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영화문화예술 커뮤니티 운동을 실천해 온 파도씨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신진 청년 작가와 경력 예술가가 고르게 선정되어, 세대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또따또가를 거쳐 자립한 60여 팀의 예술가들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6기 운영지원센터는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보다 깊이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예술가 간 협업 연구를 장려하고, 전시·워크숍·강연을 위한 라운지 공유 공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5기 자립예술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지역성과 연계한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연계형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개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팀 단위 협업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또따또가 워크앤 워크(Totatoga Walk and Work)〉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을 직접 걸으며 '자연환경, 기술, 지역사'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리서치하며 예술가의 창작이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창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조성된 라운지 '스페이스 돛'에서는 **〈릴레이 쇼케이스 슬라이딩〉**이 펼쳐진다. 여기서는 입주 예술가의 작품과 창작 과정이 유연하게 관객을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

사진. 또따또가 제공

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흘러나온 예술이 일상 속으로 미끄러지듯 스며들어 주민과 만난다. 5월 8일까지는 김근예 작가의 '일렁임의 찰나'가 첫 번째 슬라이딩으로 진행 중이다. 서로 다른 성질의 주체들이 조우하는 순간을 회화로 탐구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9월에는 또따또가 전체를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와 축제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또따또가는 그동안 동광동과 중앙동 골목 곳곳에 예술의 씨앗을 심고, 예술적 상상력을 피우며 지역과 함께 자라왔다. 예술은 쉽게 눈에 보이거나 경제적 효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삶 깊숙이 스며들어 지역을 풍요롭게 만든다. 얽힘의 예술,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존재에 진동을 전하는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지역과 공진화를 이루며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허물어 갈 것이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소중히 새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단단한 토대를 쌓아 원도심에 예술의 물결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더욱 친밀하고 다정한 또따또가가 되길 바라본다.

참파

일상적 공간과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며, 사라지는 삶의 이야기를 찾아 리서치 기반의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짠 것들의 연결망', '부유의 시간' 등 지역성과 시간을 엮는 기획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또따또가 센터장으로, 도심 속 예술 생태계를 가꾸는 일을 하고 있다.

261년의 시간을 넘어, 조선통신사선이 오사카에 입항하다!

글. **조선통신사선 항해단**

지난 4월 28일, 조선통신사선이 부산을 떠나 쓰시마, 이키, 쿠레, 도모노우라를 거쳐
5월 11일 오사카에 입항했다. 이번 항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 '한국의 날'을 기념해 추진되었으며,
261년 전 마지막으로 일본에 도착했던 조선통신사선의 역사적 항로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과연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
조선통신사선 항해단을 만나 이번 항해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감동을 들어보았다.

© 문진우

"나는 통통이(조선통신사선의 애칭) 언니다"

- 김효정 부산문화재단 글로벌문화팀 과장

많은 분들이 조선통신사선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통신사선은 길이 34m, 무게 149톤의 목조선으로, 평균 8노트(시속 약 16km) 속도로 항해합니다. "그렇게 큰 배면 안 흔들리죠?"라고들 물으시는데요, 사실 나무로 만든 배는 바람에 매우 민감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꽤 출렁이기도 해요. 하지만 맑은 날,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항해할 땐 이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짜릿한 감동을 느낍니다.

2023년에는 일본 쓰시마에 첫 입항했고, 2024년엔 조선통신사의 일본 본토 첫 기항지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통신사선의 해로를 완전히 복원하는 의미로 오사카까지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선내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항해를 하며, 해수 뿌리기부터 나무 선체 관리, 조리, 청소, 손님 응대까지 모두가 쉼 없이 움직입니다. 목조선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건 물론이고, 체력 소모도 상당해요.

그런 와중에도 항해단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명을 받은 것 같다."

저에겐 항해를 마칠 때마다 꼭 하는 작은 의식이 있어요.

배를 한 바퀴 돌며 쓰다듬고, 선내 기둥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일 고생했다."

이 말을 할 때면 울컥하기도 해요.

결국 이 배가, 이 여정이,

많은 사람들의 손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260년의 시간을 실은 긴 여정이었죠.”

- 홍순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항해 전체가 저에겐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감상이 꼭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정말 많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웃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참여하기까지 준비 기간만 10년이 걸렸습니다. 말이 10년이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도 끝에 겨우 이 뱃길이 열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항을 앞뒀을 때는 설렘보다는 ‘내가 이 260년의 무게를 짊어지는 건가’ 하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걱정도 컸고요.

하지만 항해가 진행되면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기항지를 돌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조선통신사선을 소개하고, 공연을 선보이면서... ‘아, 이게 진짜 조선통신사가 했던 일이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점점 기쁨도 커졌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통신사들도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번 항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노세키에서 카미노세키로 출항하던 날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파도는 3미터가 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항해 자체가 불가였을 텐데, 희한하게도 배 뒤쪽에서 바람이 밀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서 가라”는 것처럼요. 전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 배는 정말 아름답고, 품격이 있는 배입니다.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조선 기술과 정신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니까요.

현지에서 배를 처음 마주한 시민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신기함과 감동이 담긴 그 눈빛이요. 결국 이 항해는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여 완성된 여정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한 척의 배가 만든 인연과 성장의 항해

- 강원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학예연구사

배를 기술적으로만 보면 조선공학은 이공계 분야이고, 숫자와 값이 정확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다르죠. 명확히 계산된 값보다는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통신사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느낍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며 항해하는 여정. 그 안에서 저도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무척 기쁩니다.

이 배와 본격적으로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7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2018년 진수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여정이니까요. 그동안 갈등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모두의 목표가 같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배에 ‘통통이’라는 애칭도 붙여줬고, 가끔은 장난처럼 ‘요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기하게도, 뜻이 안 맞거나 마음이 불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결국 같은 마음을 오래 품은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배가 이뤄낸 꿈같은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려고 해요. 항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공감 능력이나 사람 마음을 잘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통통아, 사랑해.”

현대 항해사의 전통선 도전기

- 김성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조선통신사선 선장

전통 한선을 복원해 운항하는 일은 현대 선박과는 전혀 다른 도전이에요. 요즘 선박은 대부분 기계식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통신사선은 구조적으로 그와 잘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선체가 가볍기 때문에 바람, 파도, 조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정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확실히 더 어렵죠.

기상이 나빠지면 배를 조정하는 일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부두에 접안할 때는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에요. 선체의 '멍에' 부위가 암벽에 닿기라도 하면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각을 최대한 곤두세우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행기처럼 배도 출항과 정박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매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항해에서 제가 직접 키를 잡고 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잘못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통신사선이라는 특별한 배의 선장으로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큰 영광이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정을 함께해 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인의 항해단

부산문화재단 글로벌문화팀 김효정 과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홍순재 학예연구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강원춘 학예연구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조선통신사선 김성원 선장

조선통신사선 기록 곽유석

조선통신사선 사진 오세윤

조선통신사선 기관장 장기백

조선통신사선 기관사 이송열

그리고 조선통신사선을 웃게 하는 가장 좋은 친구 부산예술단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연결고리: 정책, 예술인, 시민을 잇는 사회자본의 힘

- 2024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조사 갈무리

글. **원향미**

1. 들어가며

정책과 현장의 거리감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 문제이다. 정책과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현장에서도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지 않는다면 정책과 현장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부산문화재단이 정책기획센터를 설립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함이다. 이는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2024년에는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와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21년 조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예술 현장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2024년 조사는 일상의 회복 국면 속에서 문화예술이 무사히 시민의 곁을 지키고 있는지, 예술인들의 삶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두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문화정책이 주목해야 할 지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사회자본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한 이후 우리는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며 적응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집중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했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예술인 간의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개인 중심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고립되기 쉬운데, 건강한 동료 관계는 사회와 예술인을 이어주는 튼튼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 협단체 가입 여부,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도움, 참여 의향이 있는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의 68.1%가 예술인 협단체 활동을 한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주요한 이점으로는 활동 기회 확보(63.4%), 정보 공유(54.0%), 경제적 수익(21.0%), 타 지역 진출 기회(10.7%) 등이 있었다. 참여 의향이 있는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동일 장르 예술인(55.8%)과 부산지역 예술인 간의 교류(46.9%)가 높은 응답률을 보여, 지역 내 유사 분야 예술인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이들 중 56.4%가 협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도움을 받는 주요 경로는 전체 예술인이 협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는 비율(55.8%)과 달리, 청년 예술인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54.9%)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해 네트워크 방식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협회 중심의 연결뿐 아니라, 관심사나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하고 느슨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청년 예술인들에게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예술활동을 즐기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생활권 문화공간의 중요성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있다.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9%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치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이 확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의 경우 관람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을 위한 입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도 함께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에 관한 것이다. 시민들은 공연이나 전시 관람 등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었으나, 문화예술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은 주로 생활권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골고루 공간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내포한다.

4. 나가며 -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문화예술의 확산을 기대하며

이번 트렌드조사에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도 함께 조사했다. '문화예술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84.9%가 동의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이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적 소비재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이번 결과는 문화예술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필수재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문화예술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예술인이 자주 만나고 연결되는 접점이 많아질수록, 부산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사회자본은 유사한 집단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을 연결하는 '연계형 사회자본'으로 구분된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내부 집단의 연대감과 호혜성을 높이고, 연계형 사회자본은 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1)]

예술인과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교류하는 접점을 확대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회자본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와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 수립과 실질적 실행이 요구된다. 이런 전략이 잘 작동한다면, 향후 조사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재단 역시 연결과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1) 로버트 D. 퍼트넘 지음, 정승현 옮김,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23, p.26.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 선임연구원
더 나은 부산지역의 문화예술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찰하고, 만나고,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일하고 있다.

마음을 담다:
예술의 잠재력, 치유의 가능성

글. **우동준**

부산문화재단은 의료 현장에서 예술의 치유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 **‘2024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치유-〈마음을 담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Hospital Art’** 개념을 부산 지역 의료 환경에 적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예술인이 의료 현장에 진출하고, 예술을 통해 시민의 심리적, 관계적,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부산문화재단은 다움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과 협력하고, 김옥련, 방도용, 서혜인, 김화진 작가와 함께 예술의 본질적 변화를 모색했다. 이들은 무용, 음악, 창작공예, 표현치료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활용하여 환자의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 회복을 강화했고, 예술가와 참여자가 함께하는 자발적 활동을 설계했다.

프로젝트는 병원별 환자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접근법을 선택했다. 예술인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암 환자에게는 신체와 감정 표현의 연결성을, 정신질환자에게는 상호연결과 자존감 회복을 우선했다. 우선 암 환자의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몸에 대한 태도였다. 대부분의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갖고 있었고, 이는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으로 이어졌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통증’이라는 수동적 경험을 ‘감각’이라는 능동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세 명의 예술가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환자의 상황에 맞춰 재해석했다. 김옥련 발레리나는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몸의 움직임과 자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했고, 마임이스트 방도용은 일상적 움직임에 숨은 회복적 의미를, 표현예술가 서혜인은 다양한 음악과 도구를 활용하여 자아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했다. 이들은 신체와의 회복, 기억과의 회복, 병원 내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화진 대표 역시 다움병원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연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진행했다. 다움병원 이용자들은 특히 자기표현과 감정노출에 저항감을 보였고,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어려움을 느꼈다. 김 대표는 환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꽃, 풀, 나무 등의 자연물을 제공하고 직접 감각을 일깨울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나보다 연약한 식물을 지키는 활동은 서툴렀던 내면의 돌봄 감각을 섬세하게 키워주었다. 김 대표가 설계한 공감각적 경험은 정신질환 환자에게 일상의 감각을 회복하고, 자연과 연결되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시공간을 제공했다.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는 획일화된 정답과 표준화된 예술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참여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찾고 정의하는 과정이 허용되고 존중받았으며, 개별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가 프로그램의 본질적 가치를 형성했다. 다양한 꽃잎의 혼합이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듯, 누구의 의견도 배제하지 않는 예술 환경이 포용적인 치유로 확장되었다.

치료가 의료진이 주도하는 수동적 과정이라면, 치유는 환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능동적 과정이다. 환자의 의지가 없어도 치료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의지가 없다면 치유는 불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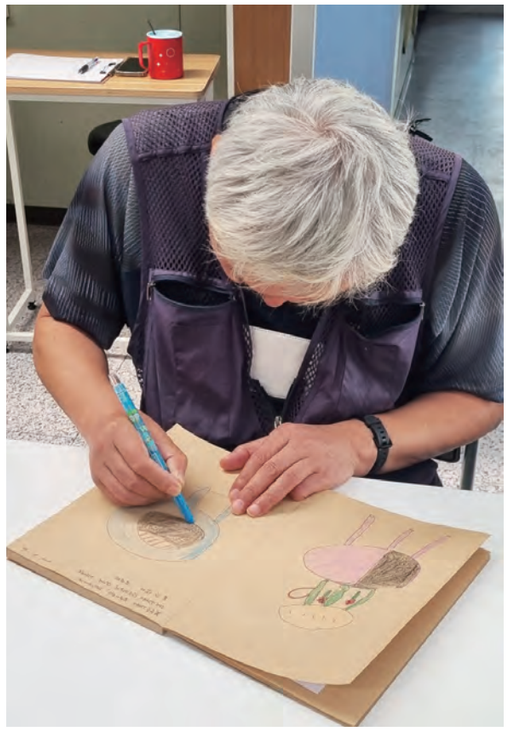
다. 그렇기에 예술의 목적은 분명하다. 아무리 신체가 회복되어도 문화예술을 통해 타인과의 호혜적 연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회복은 무용하기 때문이다.

부산문화재단의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는 지역 의료 환경 내 예술의 역할과 쓸모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많은 환자가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을 고백할 때, 자신의 감각을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는 예술 활동은 환자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치유 경험을 제시했다.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로,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위험, 돌봄 공백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현대 시민의 사회적 고립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져 의학적 진단만으로는 분명한 대상자 발굴과 대안 모색이 요원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가 보여준 예술치유의 가능성은 부산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치료적 행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회적 공백을 발견하고, 사회적 돌봄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부산이 진정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화려한 문화 행사나 대형 축제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 중심 문화정책'을 위해서는 시민의 삶과 내밀하게 연결되는 문화예술의 치유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문화예술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움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과 협력했던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처럼



도시 전체에 치유예술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군별 요양시설과 연계하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노년 대상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와 의료는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가 보여준 바와 같이 두 영역의 통합적 접근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문화복지와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통합적 체계가 구축된다면 초고령화 도시 부산의 전인적 웰빙을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 역시 참여자 수의 제한, 단기적 프로그램 운영, 치유 효과의 지속성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술치유의 가능성은 부산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편협한 상상을 넘어 한 개인과 집단의 전인적 치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담다〉 프로젝트가 진행한 작은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시민이 예술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동준
도시와 사람을 관찰하고, 격차와 갈등을 연구한다. 서로를 향한 격려가 사회를 바꾼다고 믿고 있으며, 매년 절판 위험을 마주하지만 꾸준히 책을 쓰고 있다.

포도알 삼키기

글. **조재윤**

나를 뒤따라 나온 그가 웃는 얼굴로 손바닥을 펼쳐보였을 때,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손금을 짓누르고 있는 동그란 포도 한 알을 보았을 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했다. 나는 그가 내민 포도를 집어서 입에 넣었다. 이빨로 껍질을 벗겨내자 과즙이 입 안에 퍼졌다. 이빨로 포도를 씹으려고 할 때 그가 말을 걸었다.

맛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실수로 껍질과 포도알을 삼켜버렸다. 끄덕과 꿀꺽은 함께 일어났고 나는 목을 타고 넘어가는 포도알을 상상했다. 동그란 과육과 그 속에 심겨져 있는 씨앗은 온전한 상태로 텅 빈 위장에 톡, 하고 떨어졌다. 그가 싱긋 웃으며 내 어깨를 톡 두드리며 다행이에요, 말한 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떤 게 다행인지 몰라서 회사 정문에 오도카니 서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는데 그때서야 나는 그가 나와 같은 부서였다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이름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정오의 햇빛을 받으며 걸었다. 회사에서 집은 멀지 않았다. 신호등을 세 개 건너면 원룸이 나왔다. 결국 일 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회사에서 둥둥 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뭉게뭉게 떠 있는 연기처럼 지내다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세 개의 신호등 중 어느 곳이든 서 있는 나를 상상을 했다. 도로의 바깥이든, 안이든 좋다고 생각하며. 회사를 그렇게 쉽게 때려치우면 무얼 해먹고 살 수 있겠냐는 엄마의 잔소리가 귓가에 잔상처럼 퍼질 줄 알았는데 들려온 건 뜻밖의 말이었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목소리가 엄마의 뒤에서 익살스럽게 말했다.

야, 니 씨 삼켰나. 니 이제 배에서 포도나무 자란디.

빨간불. 첫 번째 신호등 앞에 멈춰 섰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내가 포도를 먹을 때면 말하던 사람. 엄마의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외삼촌이었다. 그러고 보니 포도를 씹지 않고 그대로 꿀꺽 삼킨 게 얼마만인지. 초록불. 나는 발을 뻗으며 생각했다. 그땐 청포도였던 것 같은데. 신호를 다 건널 때 즈음부터 동그란 과육이 뱃속을 뒹굴거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 신호등은 아주 길었다. 양 옆으로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다. 이십 년 정도 삼촌을 잊고 살았다. 삼촌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회사 그만뒀어 라는 말은 괄호 안에 숨겨둔 채 외삼촌은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었다. 삼촌은 엄마의 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었다. 신호등은 계속해서 빨간불이었다. 엄마는 나의 질문에 왜? 라고 답했다. 회사에 있을 시간인 딸이 정오에 뜬금없이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삼촌의 소식을 궁금해 할 확률 같은 건 엄마가 생각하지 않길 바랐다. 다행히 엄마는 추궁 대신 느그 삼촌, 이라고 운을 뗐다.

니 초등학교 드가기 전에 죽었다이가. 기억 안나나.

빨간불. 아니, 5초 전부터 파란불인 신호등엔 나만 남아 있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적당한 온기의 바람이 불었다. 회사에서 집이 멀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을 보며 걷던 출근길과 달리 이른 퇴근길은 멀었다.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아침에도 꽃이 피어 있었나. 하루하루 미뤄뒀던 봄이 어느새 빨간불로 변해버린 신호등 앞에 도착해 있었다. 다시, 다시 두 번째 신호등.

삼촌의 그 말을 듣고서 아마 나는 울었을 것이다. 내 배에서 싹이 자라고 가지와 줄기가 온 몸을 채우고 포도송이가 와글거리게 될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런 나를 보며 삼촌은 껄껄 웃었을 것이다. 나는 삼촌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것이다. 삼촌은 나를 꼭 껴안으며 또 껄껄 웃으며 말했을 것이다. 괜찮다고. 너의 몸에서 자란 포도는 아주 맛있을 거라고. 삼촌의 배에도 똑같은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초록불. 엄마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삼촌이 생각났느냐고 물었다. 나는 포도 때문이라고 답하려다 삼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었다. 엄마는 숨을 몇 번 들이키더니 답했다.

갸는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갔지. 나쁜 놈의 자슥.

어른처럼 보였던 삼촌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고작 서른 남짓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신호등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나와 같은 부서이지만 이름은 모르는 그가 누구인지. 초록불로 변했음에도 건너지 않는 나를 누군가 바라보았다. 유모차에 늙은 말티즈 한 마리를 태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유모차를 밀며 말했다. 잘 갑시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뭉게뭉게 떠 있던 나에게 매일 인사를 건넨 유일한 사람이었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포도알을 입에 넣었을 때처럼, 끄덕끄덕. 그의 손바닥에 놓인 포도알은 빨간불이 아닌 초록불임에도 신호등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세 번째 신호등을 건너고 뒤를 돌아봤을 때 배에서 뒹굴거리던 과육이 꿈틀거리며 생동했다. 씨앗 사이에서 파릇한 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분명히 맛있는 포도겠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조재윤
1995년 식목일에 태어났다. 소심하고 사소한 편이다. 소소하고 사소한 이야기가 소설에 담기길 바라며 글을 쓰고 있다.

《공감 그리고》
독자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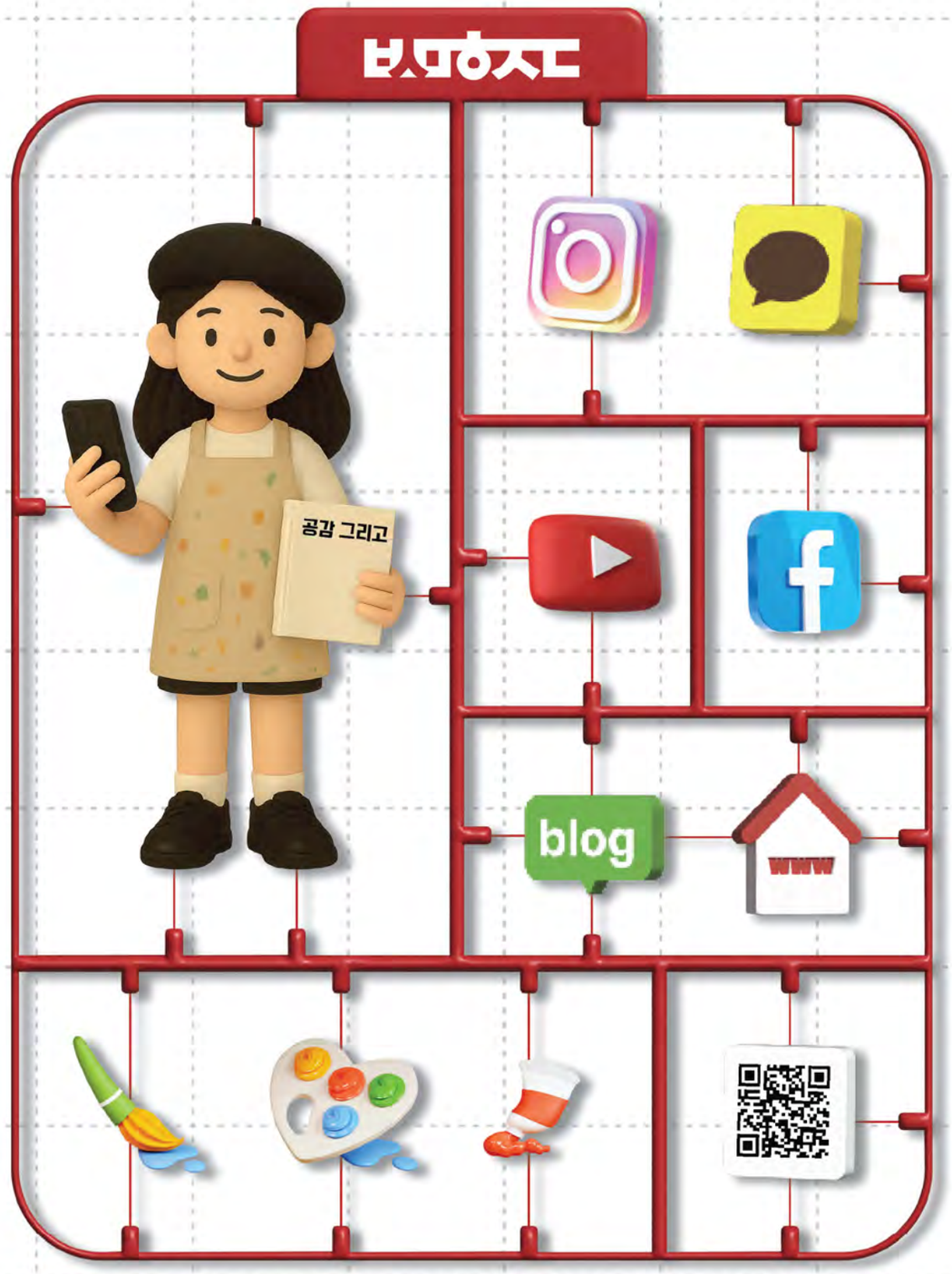
《공감 그리고》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좋은 《공감 그리고》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매월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지급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조사에 응답
설문기간 2025년 12월 12일(금) 까지
당첨발표 매월 초 개별 연락

B-컬처 플랫폼,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받아보세요!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